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15일 화요일 음 7월 28일 (5물)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도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된다. 아침 기온은 20~22℃, 낮 최고 기온은 26~27℃로 선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일부터는 비가 시작돼 금요일 오전까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1.0m로 일겠다.

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
20%	제 주	30%
20%	성 산	20%
20%	고 산	20%
20%	서귀포	20%

	해뜸 06:17 / 해짐 18:40	달뜸 03:19 / 달짐 17:33
물때	만조 08:55 / 21:45	간조 03:40 / 15:2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리고 비	22/26℃
모레	흐리고 비	23/25℃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위험	높음

월드뉴스

미 대선 지지율 바이든 51% vs 트럼프 46%

격차 5%… 전월보다 좁아져

미국 대선이 약 두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율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5%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에 따르면 지난 7~10일 투표 의향이 있는 1191명을 조사한 결과 바이든 지지율이 51%로 나타나 트럼프 대통령(46%)을 앞질렀다. 지난달 조사에서는 바이든 49%, 트럼프 42%로 7% 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9개 현안 중 8개에서 트럼프 대통령보다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이중 국민 통합, 인종 차별에서 특히 격차가 컸다. 바이든 후보가 각각 54%, 53%를 얻어 둘다 41%에 그친 트럼프 대통령보다 우위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게 우위를

도널드 트럼프(왼쪽)와 조 바이든.

점한 현안은 경제(51%)로, 바이든(46%)보다 5%포인트 높았다.

바이든이 앞서는 지지층은 여성, 교외 거주자, 고령층, 밀레니얼 세대, 중남미계, 흑인이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인, 남성, 시골 거주자, 천주교 내 백인, X세대, 참전용사 등에서 앞섰다.

응답자들이 꼽은 걱정거리로는 실업률(87%), 코로나(83%), 범죄 및 폭력(64%) 등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통제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선 '전혀 그렇지 않다'는 답이 40%로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이 용 곤 편집국장 조 상 윤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한라칼럼

우리 시대의 언어

문 만 석
사)미래발전전략연구원장·법학박사·독자위원

혼돈의 시대에는 다양한 욕구의 분출과 더불어 그 세태를 반영하는 새로운 용어도 등장한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Blue(우울한)의 합성어로,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 불황으로 인한 우울감과 무력감을 반영하는 용어이다. 마스크 착용 문제로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코로나 블루'는 이 시대를 적확하게 표현하는 용어인 것도 같다.

"언어는 인류가 써온 가장 강력한 마약이다." 노벨문학상 작가인 러디어드 키플링의 말이다. 문학평론가 이어령은 "군사력이나 경제력보다 제3의 파워인 말의 힘이 더 강력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매우 드물다"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언어가 강력한 힘을 가진 만큼, 그 언어의 힘을 이용한 용어가 새로이 등장하기도 한다. Luxury Goods는 사치품이나 호사품으로 번역돼야 함에도, 굳이 '명품'이라는 용어로 번역됐다. '명품'은 단지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에서 나아가 예술성과 장인정신, 그리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가치를 포함한 용어가 된다.

한때 뉴스에서 많이 듣던 '사회지도층'은 국민을 그들의 지도를 받는 사람으로 당연시하던 시대의 단면이다. '사회지도층'은 부나 명예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것을 더욱 공고히 하고, 그들의 지도를 받는 다수 국민들의 저항권을 옭아매는 용어가 된다. 아직도 혼재돼 사용되는 '근로'와 '노동'은 '근로의 의무'를 강요하는 측과 '노동의 권리'를 주장하는 측의 용어로 사용된다. 노동3권, 노동쟁의 등에서 보듯 '노동'은 노동의 권리를 주장하는 용어이다. 헌법 제32조에서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1948년 헌법 제정 시 극심한 이념대립의 산물이다.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인지 '노동절'인지는 단지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대가 노동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가 된다.

'선진국'은 문물의 발전이 앞선 나라를 뜻한다. 이 용어는 지속적인 경제 개발로 경제 발전이 최종단계에 접어든 국가를 지칭한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선진국의 민낯을 목도한다. 공동체를 위한 시민의식의 결여, 위기관리 능력의 부재, 의료시스템의 미비 등 우리가 선진국에 품었던 환상들이 하나씩 부서지고 있다. '선진국'은 문화와 문명의 발전을 선도하는 국가로 과대 포장돼 '후진국'에 대한 견고한 울타리로 기능했다.

센 언어와 용어가 난무한다. 의도적으로 더 강한 언어를 사용해 상대를 공격한다. 언어가 상대를 공격하는 수단이 되고, 반복적으로 악용되면서 의식을 지배한다. 갈등의 현장에는 언제나 말의 성찬이 펼쳐진다. 강한 언어가 같은 편을 뭉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상대를 설득시킬 수는 없다. 품격이 사라진 자리에 합리적 논의의 장은 요원한 일이 되고, 할퀸 상처만이 흉한 몰골로 남게 된다. 조금 더 순화된 언어와 용어를 보고 싶다.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 '코로나 옐로우'는 어떨까. 힘든 시기일수록 서로를 배려하고 희망을 주는 언어의 힘이 필요하다. 언어는 강력한 마약이 아니라 치료제이고, 사람을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라 설득시키는 것이다.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 마디를 건네는 하루이기를….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열린마당

'불' 나면 '대피' 먼저

이 창 한
서귀포소방서 동홍119센터장

'불 나면 대피먼저'는 2019년 3월부터 소방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재안전 특별대책의 핵심 메시지이다. 불이 나면 신고도 중요하지만 화재로 인한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무엇보다 대피를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다.

작은 화재에도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 반면에 건물이 전소되는 큰 화재였지만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도 있다. 그 특징은 사람들이 먼저 대피했고, 이는 평상시 반복한 화재대피훈련을 통해 대피요령이 숙달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소방청의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화재 발생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인명피해는 오히려 증가 추세이다. 이와 관련해 화재 발생 시 사상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연성 건축자재의 사용 증가로 화재발생 시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한다는 점, 두 번째는 급격한 연소 확대와 복잡한 건물 구조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과거보다 짧아졌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화염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연기 질식에 의한 사망자가 많아진 결과이다.

화재 대피요령을 알아보면 ▷불과 연기를 보면 비상벨을 누르거나 "불이야"라고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벽을 짚으며 낮은 자세로 대피하기 ▷비상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대피하고, 어려울 때는 옥상으로 대피하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하기 ▷평상시 소방훈련에 적극 참여하기 등이 있다.

이같은 대피요령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또 화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야외 취사, 담배꽁초, 가스레인지 등 사용 시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 습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곧 추석이다. 코로나19로 제한적인 만남이겠지만, 화재 대피요령 숙지와 함께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추석을 맞이하기를 기대해 본다.

불법 주정차, 이젠 정말 사라져야 합니다

강 용 철
서귀포시 정방동주민센터

얼마 전부터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발견 시 직접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시작됐다. 주민이 해당 차량을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부에서는 이런 조치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이야기 하지만, 절대로 과하지 않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로 인해 어린이들이 더 큰 사고가 나는 것보다 주민신고제를 통해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지난번 제9호 태풍 '마이삭'은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다. 태풍으로 비상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소방관들의 바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화재신고에 출동하는 상황에서 1대의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을 볼 수 있었다. 다행히 큰 화재가 아니어서 사고는 없었지만 만약에 큰 화재였다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태풍보다 더 큰 재앙이 될 뻔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4대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차가 있다면 누구든 신고할 수 있다.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곳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이다. 1분 이상 주정차한 사진이 찍힌다면 과태료 4만~5만원이 부과되며, 특히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시에는 2배인 8만~9만원이 부과된다.

그리고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 주차문화개선위원회, 자생단체 및 주민들은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캠페인을 자주 전개하고 있다.

불법주정차는 신고와 캠페인 등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불법주정차를 하지 말아야한다고 인식하고 이런 인식을 행동으로 옮길 때 불법주정차는 사라질 것이다.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변이지
• 천전(가와다)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 귀 종 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본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어짐.

·카라향	1, 4년생	·궁천변이	1, 2년생
·유라실생	2,3,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례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한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하귤	2,3,7,8년생
·궁천	1,2,3,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 라 전 설 (주)
대 표 :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